

‘시장중시’, ‘규제개혁’ 새정부 기대 VS ‘대외’, ‘정치’ 리스크 <기업이 본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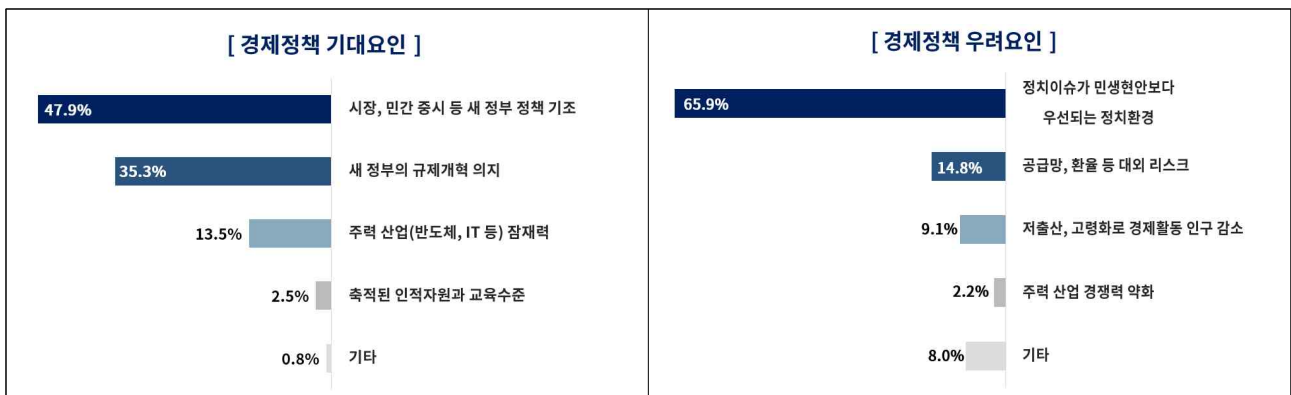
- 대한상의 조사 ... 기업 73%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한다”
- ‘삼중고’ 경제상황 : ① 高물가 피해(78%), ② 高환율 피해(52%), ③ 공급망 피해(53%)
- 경제상황 극복 위한 최우선 과제는 ‘성장동력 회복’(38%), ‘물가안정’(36%), ‘기업부채관리(20%)’ 順
- 상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경제위기 체감 차이 ... 맞춤형 지원, 장단기 통합적 접근 필요”

기업들이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환율·공급망 ‘삼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많아 새정부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혀기대안함(9.9%), 기대안함(17.4%), 기대함(65.2%), 매우기대함(7.5%)>

기대하는 기업과 기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기대요인은 ‘시장·민간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고, 우려요인은 ‘정치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가 주를 이뤘다.

<그림1> 새정부 경제정책의 기대 및 우려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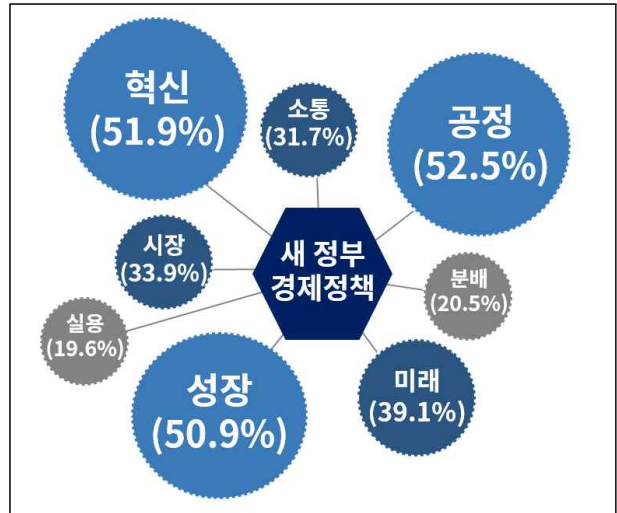


기업이 바라는 경제정책 키워드는 ‘공정·혁신·성장’, 성공요건은 ‘투자·인프라 지원’, ‘규제혁파’

기업들은 경제정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할 키워드로 ‘공정(52.5%)’, ‘혁신’(51.9%), ‘성장’(5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39.1%), ‘시장’(33.9%), ‘소통’(31.7%) 순이었다.

<그림> 기업이 바라는 경제정책 키워드 (복수응답)

새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요건에 대해선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혁파’를 꼽았다.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90.4)%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노사갈등 조정’(86.8%), ‘민관협업시스템 마련’(8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최근 경제상황은 물가·환율·공급망 ‘삼중고’ ... 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 경제위기 체감도 차이

① [물가] 77.3%가 피해호소 → “생산원가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 58.6%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물가·환율·공급망의 ‘삼중고’가 미치는 피해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도 물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해, 가장 큰 경영 리스크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받은 피해내용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58.6%),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45.4%)가 주를 이뤘으며, 기업들은 高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39.8%)하거나 ‘마케팅, 판촉비용 등을 절감’(35.7%)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기업도 28.5%였고, ‘대응 수단이 없다’는 기업은 21.3%로 조사됐다. <생산일시중단(8.8%)> (복수응답)

② [환율] 51.6%가 피해호소 → “제조원가 증가”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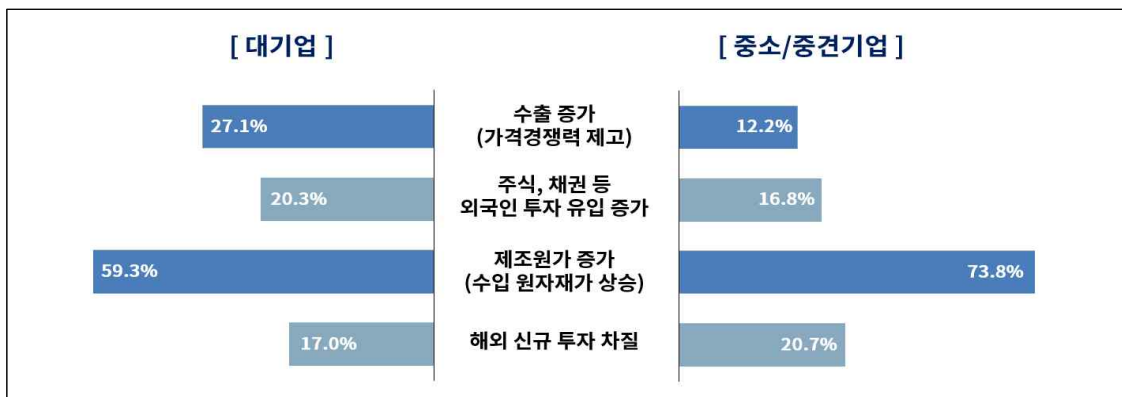
최근 급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피해를 봤다는 기업은 51.6%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은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증가’를 꼽은 기업이 68.7%로 가장 많았고, ‘가격경쟁력 높아져 수출이 늘었다’고 답한 기업은 17.5%에 불과했다. (복수 응답)

<표1> 환율 상승의 기업 영향 (%, 복수응답)

구분	제조원가 증가 (수입 원자재가 상승)	해외 신규 투자 차질	외국인 투자유입 증가	수출 증가 (가격경쟁력 제고)
전체	68.7	19.3	18.1	17.5

환율급등에 대한 체감도는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환율영향으로 ‘제조원가가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이 59.3%인 반면, 동일문항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응답은 73.8%에 달했다.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27.1%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12.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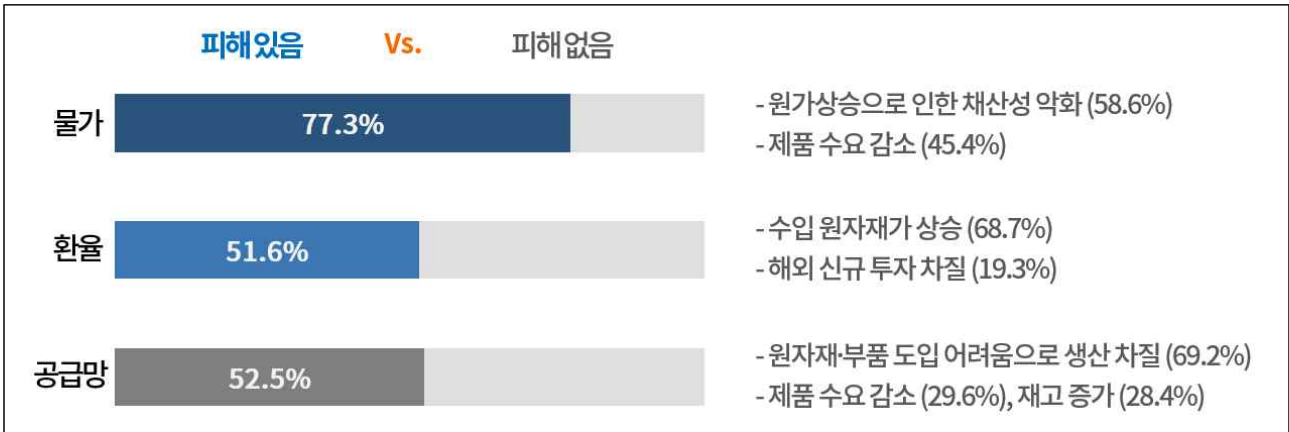
<그림3> 기업 규모별 환율 상승의 영향 (복수응답)



③ [공급망] 52.5%가 피해호소 → “원자재·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 69.2%

공급망 경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52.5%로 조사됐다. 피해내용은 ‘원자재·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69.2%)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활동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조치’(50.3%), ‘선구매 통한 재고 확보’(41.4%)의 응답이 많았으며 ‘생산·판매활동을 국내로 전환’(19.5%)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림4> 경제 '삼중고'의 기업 피해 주요내용 (복수응답)




경제상황 극복 위한 새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성장동력 회복'(37.9%)과 '물가안정'(35.4%)

'삼중고'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기업들은 '성장동력 회복'(37.9%)과 '물가안정'(35.4%)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우선 순위는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경우 '성장동력 회복'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물가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기업은 중장기 성장의 문제를, 중소·중견기업은 단기적 경영리스크 문제를 더욱 시급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았다.

<표2> 경제상황 극복 위한 새정부 해결과제 (%)

구분	성장동력 회복	물가 안정	기업부채 관리	공급망 리스크 대응	기타	합계
전체	37.9	35.4	19.6	5.6	1.5	100.0
대기업	45.8	28.9	17.8	6.5	1.0	100.0
중소·중견	33.9	38.6	20.5	5.1	1.9	100.0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우리경제는 물가·환율·공급망과 같이 현재 직면 위기요인을 돌파해야 하는 100m 경기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를 동시에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정부는 각각의 위기요인에 대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덜어주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22.4.27(수)~5.2(월)
- 조사 대상 : 국내 기업 322개사
- 조사 방법 : 모바일 조사(어플리케이션 설문 방식)